

차세대 CSR에서의 지속가능성 교육지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가이드라인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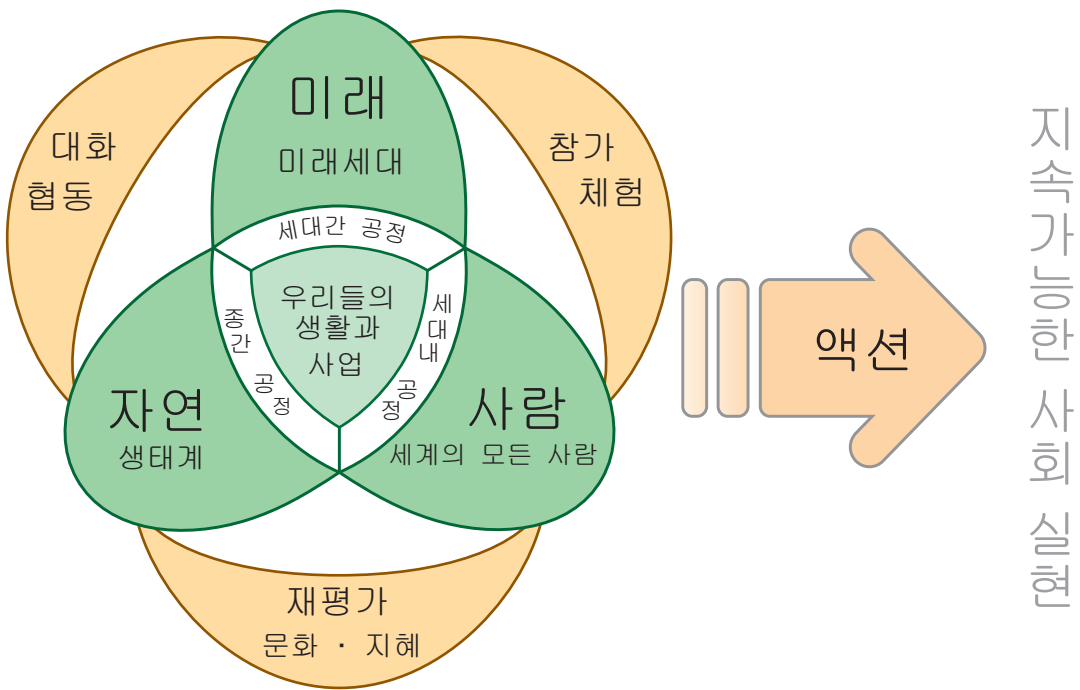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우리들은 이하의 7가지 지침에 근거하여 각각의 위치와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민감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공정」의 관점을 가지고 「3가지 접근」을 도모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액션

-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인 실천
-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의 과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위기」가 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기업 활동이 세계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대로 간파하여, 사람, 사회, 세계 모두 지속가능케 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가지의 공정 × 3가지의 접근 = 위기를 기회로!



3가지의 공정

- 세대간 공정 <미래·장래 세대>
장래 세대가 우리들과 동등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이나 사업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 세대내 공정 <사람·세계의 사람들>
우리들의 생활이나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약자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그들에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업을 전개합니다.
- 종간 공정 <자연·생태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사람이나 사회의 기반인 생태계부터 생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3가지의 접근

- 대화와 협동
간단한 답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와 「대화」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협동」해 나갑니다.
- 참가체험형의 배움
자연 및 사회와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감성」이나 「직관」을 육성하고, 「자기 일」이라는 주인의식이나 주체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식전달형의 교육뿐만 아니라 ESD의 실천 속에서 중시되어 온 「참가체험형의 학습」 방법을 활용합니다.
- 문화와 지혜의 재평가
각국의 각 지역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문화나 전통적인 자연관 등을 재인식하여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재평가하여, 미래를 위해 계승·발전시킵니다.